

연구논문

# 3세기 전후 신라의 대외교섭과 물계자(勿稽子) 전승 속 금(琴)의 실체

---

김선숙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고대사 전공

1997-sun@hanmail.net

---

- I. 머리말
  - II. 3세기 전후 신라의 대외교섭과 가야 제국
  - III. 물계자 전승 속 금의 실체
  - IV. 맺음말
-

## I. 머리말

---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나해이사금 14년(209)조에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의 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같은 책 열전 물계자조 및 『삼국유사』 피은편 물계자조 등에도 3세기초 신라와 이웃한 8개국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소위 포상팔국의 난<sup>1</sup>과 함께 주요 인물인 물계자의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포상팔국의 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다수의 연구 성과물로 나온 상황이며 물계자 전승에 대해서는 소재의 특성상 대체로 고대 악기(樂器)와 관련하여 음악사나 문화사 분야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고,<sup>2</sup> 더 나아가 신라 화랑의 풍류도나<sup>3</sup> 도교사상과 연결해 선도(仙道)의 주류세력으로서 아도갈문왕(阿道葛文王)의 아들이자 박제상의 부친인 물품파진찬(物品波珍飡)을 동일인물로 보고 고조선의 선도 전통이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는 시각에서 다룬 논문도 등장했다.<sup>4</sup>

여기에서 포상팔국이란 오늘날의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8개의 변한 또는 가야 소국을 지칭한다.<sup>5</sup> 이 포상팔국의 난에 대해서는 특히 발발 시기와 대

- 
- 1 '난'은 지배세력이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을 지배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용어로써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체 간의 전쟁으로서 포상팔국의 난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남재우, 「포상팔국 전쟁과 그 성격」, 『가야문화』 10(1997), 183-184쪽.
  - 2 강미연, 「삼한시대 음악상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27(1999); 문제숙, 「한국 고대 현악기 연구」, 『한국전통음악학』(2002); 이보형, 「韓國과 中國에서 臥箏篥(거문고=玄琴)類와 琵琶類의 傳承과 變化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한국악기학』 9(2012); 주재근, 「한국 고대 유적 출토 현악기의 음악고고학적 연구」, 『국악교육』 47(2019).
  - 3 박정린, 「범부 김정설의 풍류도적 음악관」, 『민족미학』 13-2(2014).
  - 4 정경희, 「2세기 후반~3세기 전반 신라의 仙道와 '物品波珍飡(勿稽子)」, 『선교문화연구』 37(2012).
  - 5 여기에서 변한의 국은 12개인데 弃軍彌國을 포함하면 13개의 국이며 변한 지역의 국명으로 보이는 포상팔국 등은 변한 제국을 제외한 다양한 '여러 작은 벌읍', 즉 諸小別邑 형태의

상국에 대한 문제가 줄곧 첨예한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난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는 3세기 초반, 3세기말,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4세기 전반, 4세기 중반, 4세기말~5세기 초, 6세기 중엽, 7세기 초반 등 매우 다양하며,<sup>6</sup> 대상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금관가야(금관국)의 전신인 구야국과 아라가야(안라국)의 전신인 안야국 등으로 나뉜다.<sup>7</sup>

그런데 이 포상팔국의 난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 인물로는 3세기대 포상 8개국과의 전쟁을 성공적인 승리로 이끈 신라 장군 물계자가 있으며 여기에 현악기인 금(琴)이 등장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악(新羅樂)에는 거문고(현금)·가야금·비파 등 3가지의 현악기가 있는데 거문고를 현금(玄琴)이라 불렀으며 중국의 금을 모방한 것으로 4세기대 중국의 동진(東晉)에서 구려에 보낸 칠현금(七絃琴)을 재상 왕산악(王山岳)이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

정치집단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남재우, 「골포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경계』 54(2005), 138쪽.

- 6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편년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3세기 초로 보는 견해[천관우, 『가야사연구』(서울: 일조각, 1991), 16쪽; 이현혜,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1988), 166~168쪽; 백승중, 「1~3세기 가야 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부대사학』 13(1989), 30쪽; 권주현, 「阿羅加耶의 成立과 發展」, 『계명사학』 4(1993), 23쪽], 포상팔국의 난을 기록한 사서의 기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기년을 수정하여 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김태식, 「함안 안라국의 성장과 변천」, 『한국사연구』 86(1994), 51쪽], 김해 가야 세력의 멸망 이후 대가야 멸망 이전의 6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金廷鶴, 『任那と日本』(東京: 小學館, 1977), 57~58쪽; 선석열, 「浦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고찰」, 『가라문화』 14(1997), 88~89쪽], 진흥왕대 이후 6~7세기대로 보는 견해[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東京: 吉川弘文館, 1962), 174쪽]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7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다음의 논문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허삼팔, 「포상팔국의 발생시기와 성격: 4세기 중반설을 제기하며」,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1~5쪽; 정상희, 「포상팔국 전쟁의 개전시기와 전쟁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110(2018), 25~40쪽.

제작한 악기라고 했다.<sup>8</sup> 참고로 고구려의 거문고는 4세기대 이후에 축조된 평안남도 대성리고분이나 황해도 안악고분 벽화 속에서 그 형상(形像)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sup>9</sup>

따라서 고구려의 거문고는 5세기대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신라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물계자전에 보이는 신라의 금(琴)은 전승의 시대적 배경상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거문고(玄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현금은 아마도 5세기대 당시 출신을 알 수 없는 소위 백결선생이 중국 춘추시대 사람인 영계기를 본받아 연주한 것으로 알려진 거문고(琴)일 가능성이 있다.<sup>10</sup>

물론 중국의 거문고가 진한 시기에 낙랑군과 교류하면서 사로국에 유입되어 전파된 악기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악기가 삼한의 유적지에서 실물로 발견된 바 없다. 다만 사료상으로는 3세기 당시 진한에는 중국의 축과 유사한 슬로 알려진 현악기가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광주 신창동 유적이나 창원 다호리 유적, 경북 경산시 임당택지 등에서 삼한의 악기로 추정되는 현악기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는 점에서 신라의 악기는 고구려의 거문고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되어 연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물계자 전승 속에 등장한 금은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이전 시기부터 물계자의 의로운 행동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악기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3세기 당시 신라에도 중국의 악기와 유사한 슬로 기록된 현악기가 존재했었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전

8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故國原王 6년 춘3월조, “遣使如晉貢方物”; 『三國史記』雜志 樂條.

9 이보형, 앞의 글(2012), 11~12쪽.

10 『三國史記』列傳 百結先生條, “不知何許人 居狼山下 家極貧 衣百結若懸鶉 時人號爲東里百結先生 嘗慕榮啟期之爲人 以琴自隨 凡喜怒哀歡不平之事 皆以琴宣之”.

승 속 금은 3세기 당시 신라 사회 내에서 널리 애용된 악기로 판단되며, 열전 속의 내용처럼 실제로 물계자가 직접 이 악기를 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3세기대 전후 신라의 대외교섭과 가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뒤이어 물계자 전승 속 금의 실체를 역사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II. 3세기 전후 신라의 대외교섭과 가야 제국

---

신라는 건국 초기 중앙집권적 통치국가가 아닌 여러 소국(小國)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진한 제국 소속의 사로국(斯盧國)에서 출발했다. 이 시기는 신라사에서 상대(上代)로 분류되며 제1대 왕인 혁거세거서간(赫居世居西干)을 시작으로 제2대 왕인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을 거쳐 제3대 왕인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으로부터 제10대 왕인 나해니사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10명의 거서간·차차웅·이사금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 이들 가운데 사료상에서 전하는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난 시점의 최고통치자는 제10대왕인 나해이사금(196~230)으로서 그는 건국의 시조로 알려진 혁거세의 자손이 아니라 외래 세력인 탈해<sup>11)</sup>의 혈통이면서 역대 세 번째로 등극한 임금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그가 통치하던 3세기 초반에는 국내적으로 홍수와 큰 가뭄 및 태풍, 지진, 대설(大雪), 서리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던 시기였다.<sup>12)</sup> 대외적으로는 백제나 말갈, 왜 등의 외부세력이 국경을 빈번히 침범하거나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변경 지역을 침범하는 어수선

---

11 김선숙, 「신라 탈해왕의 출생지와 이주배경」, 『인문학연구』 16(2011).

12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條.

한 상황이었다.<sup>13</sup> 그런데 『삼국지』 위서 오환선비동이전 한조를 살펴보면, 백제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3세기대 초반까지도 후대의 백제(百濟)와 같은 단일한 중앙집권적 통치국가가 아닌 한강 주변의 소국과 영토를 두고 전쟁을 벌이던 마한 소속의 백제국(伯濟國)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 시기의 백제국에 대해 마한의 전 영역을 통합한 중앙집권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백제가 마한의 새로운 맹주국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3세기 후반 너머이며 진한과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4</sup>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 기년 역시 수정론적 시각에서 나해이사금대의 포상팔국의 난을 대체로 후대의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3세기 말 이후 변한의 정치집단들이 낙랑과의 교역을 통한 선진문화의 유입으로 자체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sup>15</sup> 이것이 고고학상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반의 시기, 낙동강 서남부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유적 양상이 고식도 질토기의 출현이라든가 대형목곽묘의 등장, 철소재의 다량부장, 철제갑주의 출현, 4세기대 이후 철제농기구의 발전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가 등에 의해 이전 시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쟁은 무리를 이룬 집단이라면 한 사회의 규모나 시기, 농업생산력, 국가발전단계 및 철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원시시대부터 행해져 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 사료에 보이는

---

13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 4년조, “秋七月 百濟侵境”;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 8년조, “冬十月 靺鞨犯境”;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 13년조, “夏四月 倭人犯境 遣伊伐浪利音 將兵拒之”.

14 김수태, 「사료국의 성장과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 82(2016), 109쪽.

15 남재우, 『安羅國史』(서울: 혜안, 2003), 101쪽.

고조선이나 부여 등과 중국 진한(秦漢) 왕조와의 전쟁은 물론, 『삼국지』 등에 보이는 한·예·왜 등의 여러 소국들과 중국의 군현세력 간 교류 및 전쟁을 벌인 사건들이 기원후 2세기대의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sup>16</sup> 이는 곧 3세기말에서 4세기 이전의 모든 정복전쟁이 철제무기의 사용 여부나 농업생산력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석기나 청동기 등 무기의 재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sup>17</sup>

한편 『삼국사기』 거도전(居道傳)에 따르면, 거도는 탈해왕대에 관직에 나아가 간(干)이 되었고, 변방의 관리(邊官)가 된 이후 미리 훈련시킨 군사를 동원하여 인근 지역 사이에 있어서 자못 나라의 근심이 되었던 우시산국과 거칠산국 등을 멸망시켰다고 한다.<sup>18</sup> 여기에서 우시산국은 울산에, 거칠산국은 동래에 각각 비정되며 이들 지역은 모두 신라에서 가야로 통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라에 유입된 유물이 구야국으로 전해지는 중간 지점의 기

16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桓靈之末 韓濊強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兩漢志 樂浪郡屯有縣)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濊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昕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17 그러므로 4세기 이전 변·진한의 소국들이 벌인 전쟁의 흔적을 고고학상에서 찾을 수 없거나 또는 기록상으로 2·3세기 당대 적은 인구수 대비 참전한 군사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그 시기에 포상팔국 전쟁을 치르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예단하면서 현재까지 입증할 만한 문헌이나 고고학 자료가 충분치 못한 같은 시기 『삼국사기』 초기 기사 속 기년을 부정한다거나, 후대의 사건으로 속단하는 등의 태도는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혀 도리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18 『三國史記』列傳 居道,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 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19</sup>

『삼국사기』에는 201년과 212년에 걸쳐 가야국이 사로국에 화친을 요청하고 인질을 보내기도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sup>20</sup> 이 기사에 등장하는 가야국은 여러 소국들을 아우르는 연맹 전체의 개념이라기보다 나해이사금 14년(209) 7월무렵 포상팔국의 침입으로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던 일국의 가라(加羅)로 예상된다.<sup>21</sup> 참고로 가야에 대해서는 본래 변진(변한) 지역 소국들의 맹주적인 금관가야의 이름이었다가 이후 변진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다시 가야 후기의 맹주국인 대가야의 국명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이 시기 가야 제국의 맹주는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었던 금관가야였다. 그러기에 가라를 김해의 금관가야로 보는 한편에서는 포상팔국간 다툼에 대해 교역권을 둘러싼 항쟁으로 보려는 측면이 있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변한 가야 제국의 맹주국으로서 102년(파사니사금 23)에 음즙벌국과 실직국국 등이 경계를 두고 다투면서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신라왕에게 요청하자 부담을 느낀 신라왕이 금관국 수로왕에게 판결을 부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sup>23</sup> 그런 점에서 뒤이어 나오는 209년의 포상팔국 전쟁과 관련이 있는 가야는 김해의 금관가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전체적으로 가야와의 관계를 기술하면서 가야 제국 가운데 어떤 국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야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했다. 또한 이 책에는 나해이사금 14년(209)의 포

19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2010), 24~25쪽.

20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 6년 춘2월·17년 춘3월조.

21 『三國史記』新羅本紀 奈解尼師今 14년 추7월조, “浦上八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22 김태식, 『加耶聯盟史』(서울: 일조각, 1993), 16~20쪽.

23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3年 추8월조.

상팔국 침략사건 기사에만 유일하게 가야(加耶)가 아니라 또다른 칭호인 가라(加羅)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다. 이에 대해 후대에 기사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추후 논의가 좀더 필요하겠지만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변진별고(弁辰別考)에서 포상팔국의 분쟁 사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라(迦羅)가 아닌 한자(漢字)가 다른 가라(柯羅)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sup>24</sup> 이는 정약용의 오기로 판단<sup>25</sup>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에게 금관가야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가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며 임나국은 일본서기에 임나 4현 등 혼란함이 있었기에 기록으로 남았던 것 뿐 기본적인 서술방향은 금관가야가 중심이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료를 접해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잘못 삽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전사(傳寫)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물계자전에는 아라국이라는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포상팔국의 침입을 계기로 신라에 도움을 요청한 가라는 함안의 아라가야, 즉 아라국(안라국)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아라국이 소재한 함안 지역은 김해뿐 아니라 남해의 해안가에 위치한 포상팔국의 일원인 창원, 칠원, 마산, 고성, 사천 등과 근접해 있는데, 바다를 통해 한군현 등과도 교류하면서 대외활동을 통한 발전 기반을 펴하고 있었다.<sup>26</sup>

진한의 사로국이 포함된 한국인들(삼한 제국)은 기원후 1세기대부터 개별적으로 서북한 지역에 위치한 한(漢)·위(魏)의 낙랑군과 교섭 내지 교류를 이

24 <勿稽子傳>云, “浦上八國 同謀伐柯羅國 柯羅遣使講救”.

25 남재우, 앞의 책(2003), 109쪽.

26 위의 책, 115쪽.

어 오고 있었다.<sup>27</sup> 사료상에서 전하는 기원후 1세기대 낙랑과의 교섭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한의 우거수<sup>28</sup> 염사치와 소마시 무리를 들 수 있다.<sup>29</sup> 여기에서 염사치(착)는 진한 염사 지역(염사국)<sup>30</sup>의 거수로서 치(鎡)는 지(支·智·知) 등과 같은 존칭이거나 인명일 수도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sup>31</sup>

염사치는 지황(地皇) 연간(20~22)에 무리를 이끌고 낙랑으로 귀부한 진한의 거수였다. 여기에서 거수는 변진한 여러 작은 별읍의 우두머리로서 또 다른 표현인 장수(長帥)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sup>32</sup> 그런데 거수에 우(右)자가 붙은 것은 공간적 의미와 함께 세력이 강하다는 뜻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며 진한 내에서도 구야국의 주수나 읍군이 아닌 상당한 세력을 갖춘 주수가 귀부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견해가 있다.<sup>33</sup>

그러나 『후한서』에는 한(韓)의 여러 작은 별읍(別邑)에 거수가 있고 대자(大者)를 신지(臣智)라고 하며 그 다음을 험측(險側), 번지(樊祗), 살해(殺奚), 읍차(邑借)라고 한다는 기사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 대자인 신지는 우

- 27 삼한과 낙랑의 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서 참고된다. 윤용구, 「삼한과 낙랑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 34(2004).
- 28 진한의 우거수에 대해 ‘진한의 우측에 있는 거수 즉 진한의 서방에 위치한 변한의 거수’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연민수, 「변진시대 가락국의 성장과 외교」, 『한일관계사연구』 51(2015), 9쪽.
- 29 『後漢書』光武帝紀 建武 20年 秋條, “東夷韓國人率衆詣樂浪內附(東夷有辰韓下韓馬韓謂之韓國也)”; 『後漢書』東夷列傳 韓 弁辰條, “建武二十年 韓人廉斯(廉斯邑名)人蘇馬謨等詣樂浪貢獻光武封蘇馬謨爲韓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魏略曰 … 王莽地皇時 廉斯鎡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 30 염사 지역의 위치는 변한 지역인 김해, 창원, 아산 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남재우, 앞의 글(1997), 147~148쪽.
- 31 이부오, 「1세기초 廉斯國의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 22(2001), 89쪽.
- 32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同書 弁辰條, “又有諸小別邑 各有巨帥”.
- 33 이부오, 앞의 글(2001), 94~95쪽.

거수로 보이는데,<sup>34</sup> 그는 그 이전부터 변한이나 낙랑과 교역을 주도한 인물로 파악된다. 이는 엽사치의 귀부 과정에서 낙랑측에 진한인 1만 5,000명과 변한포 1만 5,000필을 거두어 내었다고 하는 기사가 전하는데,<sup>35</sup> 엽사치가 변한포를 1만 5,000필이나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변한포는 변한과의 교역으로 수입된 특산품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진변한 각 지역의 특산품뿐 아니라 철 역시 교역의 대상이 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진한과 변한은 예·왜·마한 등과 교역을 하면서 철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한다.<sup>36</sup>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와 가야는 물론 일본의 고분 등에서 다량으로 철정이 출토되었고 화폐 대용으로 사용된 유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개의 교역은 주로 내륙에 위치한 영산강 및 낙동강을 통해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7</sup> 따라서 낙랑에도 엽사치의 무리처럼 내부(內附)한 한 제국의 공식 사절단을 통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과 유물들은 기원전 1세기대부터 가야와 낙랑의 양국간 교역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해 준다. 즉, 사천 늑도 유적이거나 창원 다호리 1호분에서는 관상철부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경남 해안지대가 낙랑군 설치 직후인 기원전 1세기부터 철과 같은 외래 문물들의 교류 중계지로서 기능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38</sup> 아울러 2세기 후반대에 조성된 김해 양동리 162호 목곽분에서는 한(漢)식 거울을 포함한 청동기·토

34 백승충, 「弁韓의 成立과 發展: 弁辰狗邪國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0(1997), 188~189쪽.

35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鑄收取直還郡”.

36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國出鐵 滅倭馬韓 竝從市之 凡諸貿易皆以鐵爲貨”;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37 강봉룡, 앞의 글(2010), 10~18쪽.

38 김태식, 「가야와 낙랑」, 『한국고대사연구』 34(2004), 216쪽.

기·철기·구슬 등 다양한 부장유물이 출토되었는데,<sup>39</sup> 평양 정백동 5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과 분포 양상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는 발굴조사 결과<sup>40</sup>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라는 사료상으로 삼한시절부터 중국의 군현세력과 교섭을 수행했으며 이웃한 진한의 여러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해 나갔다.<sup>41</sup> 최근 경주 사라리 무덤에서는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되는 청동거울편, 칠초철검과 철기 등 당시 권력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매장유물들이 나왔다. 그 중 특히 중국 전한시대의 청백경(淸白鏡)으로 알려진 청동거울은 피장자 가슴 쪽에 조각 1점으로 발견되었고 일부 끝자락에 갈린 흔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소유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다테이와 유적 10호 독널무덤에서 출토된 중국 전한 청백경과 명문, 글자형태, 명문대의 배치 등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알려진 사례가 없는 청백경이 사라리 유적에서 처음 출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성운문경 조각 1점과 칠초철검, 칠목기 등도 출토되었는데 성운문경은 기원전 1세기 경부터 확인되는 청동거울로 외면에 유좌라는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별자리와 유사해 성운문경으로 불리며 무덤 피장자는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로 판단된다.<sup>42</sup>

전한의 청백경은 이 지역의 정치세력이 기원전부터 중국 군현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외교류를 통해 신라는 점차 우위를 점하며 후한의 건안 연간인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진

3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편), 「김해 양동리고분군」,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1』(2018), 106쪽.

40 임효택, 「김해 양동리 제162호 토광목곽묘 발굴조사개요」(부산: 동의대학교 박물관, 1991), 3쪽.

41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3년(102) 추8월 및 同書 伐休尼師今 2년(185) 2월조.

42 뉴시스, 「경주 사라리 유적서 기원전 1세기 청동거울 발견」, 《동아일보》, 2024년 5월 8일.

한의 맹주국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신라는 진한의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면서 각국이 기존에 공유하고 있던 교역망을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사에 있어서는 기년 조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사료상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 19년(B.C. 39)조에 보이는 변한의 굴복 기사를 비롯해 건국 초기 시절부터 가야와의 전투에서 이루어 낸 영역 확장 등은 신라의 성장 기반을 확대시킨 주요 계기가 되었던 사실로서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신라는 경북 상주의 사벌국을 정벌한 249년 이후 주변국의 복속을 통해 낙동강 하류와 중상류 지역을 차단하여 주변 사회에 대한 팽창과 영향력의 확대에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결국 3세기 중반 계림령·죽령 방면 교통로에 대한 관문상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서 교역망을 세력권 아래에 둘 수 있게 되었다.<sup>44</sup>

이와 함께 신라는 가야로 기록되는 변한의 여러 나라와도 군사적 충돌을 벌였다. 그런데 다음 사료에는 읍츰벌국이나 실직곡국 등의 일부 국명만이 보인다. 또한 정확한 실체를 밝히지 않고 통칭의 가야라는 용어로만 기술된 예도 있다.

---

43 신라가 인근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3세기 후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3세기 후반에 이르러 후기 목곽묘가 각 지역의 특색을 띠고 각 지역 내에서 묘제의 규모가 다양해진 점은 이들 가운데 유력한 소국이 경제적인 기반을 축적하고 지배력을 증대해 소국 내의 율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소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세력권으로 복속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 시기의 신라도 울산 지방이나 낙동강 중류 지역까지 진출하여 세력권을 확대하면서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주장이다. 신석열,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록 문제와 신라국가의 성립,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104~111쪽; 남재우, 앞의 글(1997), 211~212쪽.

44 김지현, 「辰韓의 對外交易과 斯盧國의 성장」, 『한국고대사연구』 109(2023), 135~144쪽.

A-1. (파사니사금 15) 봄 2월에 가야의 적들이 마두성을 포위하였다. 아찬 길원을 보내 기병 일천 명을 거느리고 공격케 하여 물리쳤다.<sup>45</sup>

A-2. (파사니사금 17) 9월에 가야인이 남쪽 지역을 습격하였다. 가성주 장세를 보내 막게 하였는데 적에게 살해당하였다. 왕이 크게 노하여 용맹한 전사 오천 명을 이끌고 출전하여 패배시켰는데 노획한 포로가 매우 많았다.<sup>46</sup>

A-3. (파사니사금 18) 봄 정월에 병사를 움직여 가야를 치고자 하였으나 그 나라의 군주가 사신을 보내 죄를 청하니 곧 그만두었다.<sup>47</sup>

A-4. (파사니사금 27) 가을 8월에 마두성주에게 명하여 가야를 치게 하였다.<sup>48</sup>

A-5. (지마니사금 4) 봄 2월에 가야가 남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친히 가야를 쳤다.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하를 건넜다. 가야인이 임박해 병사를 매복시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여러 겹으로 에워쌌는데 왕이 군사를 지휘하여 떨쳐 나가면서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sup>49</sup>

A-6. (지마니사금 5) 가을 8월에 장수를 파견하여 가야를 침략케 하였다. 왕이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뒤따랐다. 가야가 성을 포위하고 고수하여 마침 비가 오랫동안 내려 곧 돌아왔다.<sup>50</sup>

이 시기의 가야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라본기」 초기 기사에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김해의 금관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 초기 기사에 보이는 가야가 사로국과 인접한 변한 여러 나라 가운데 금관국만을 가리키고 있

---

45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15년(94)조.

46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17년(96)조.

47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18년(97)조.

48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27년(106)조.

49 『三國史記』新羅本紀 祇摩尼師今 4년(115)조.

50 『三國史記』新羅本紀 祇摩尼師今 5년(116)조.

는지 의문이 든다. 가령, 파사이사금 17년(96)경 가야인들이 신라의 남쪽변 경을 습격하자 가성의 성주 장세가 이를 막아 보려고 군사를 동원했는데 도리어 실패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sup>51</sup>

여기에서 가성은 사료상으로 전하는 파사이사금 8년(87) 가을 7월 무렵 서쪽으로부터 백제가, 남쪽으로부터 가야가 인접해 있어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마두성과 함께 축조했다고 하는 기사 속의 가소성을 말한다.<sup>52</sup> 물론 서쪽의 백제는 명확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으나 정황상 후대의 백제에게 점령당한 마한의 소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두 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현재 경남 거창군의 동쪽 지역인 가조면 일대 및 근접 지역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sup>53</sup>

그런데 2세기 말에 이르면 한예<sup>54</sup>가 강성해지면서 후한의 군현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백성들이 다수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51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17년 9월조.

52 『三國史記』新羅本紀 婆娑尼師今 8년 추7월 및 8월조.

53 『三國史記』雜誌 地理 康州 居昌郡條에 의하면, 거창군의 영현 가운데 하나로 나오는 咸陰縣의 본래 이름이 加召縣이었다고 전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居昌郡 屬縣條에는 加祚縣을 소개하면서, 신라 때에는 가소현이었는데, 召와 祚의 발음이 비슷하여 祚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참고로 가소성이 낙동강 서편의 거창 지역에 위치했다면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가소성과 마두성 모두 남쪽의 가야 세력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이해하여, 거창군 가조면 일대가 아닌 경주의 남쪽 방면에서 가소성의 위치를 찾으려는 견해도 있다. 이영식, 「加耶諸國의 國家形成 問題」, 『백산학보』 32(1985), 71~72쪽.

54 일반적으로 韓濊에 대해서는 韓과 濊를 따로 해석한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한과 예를 정별했지만 정작 대방군에 복속된 것은 濊가 빠진 韓만이라는 점에서 사료상으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韓地내의 濊’로 이해하고 한은 지역명, 예는 그곳에 거주하는 濊民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용구,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2018b), 8~14쪽.

된다.<sup>55</sup> 여기에서 한에는 한과 예의 각 종족들을 지칭하며 한국은 삼한지역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3세기 초반 낙랑과 대방을 차지한 위나라와의 교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이러한 후한 군현민들의 한국(韓國)으로의 대거 유입 사건은 해당 지역 정치주도세력이나 대외교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음의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삼국지』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하호들도 군에 조공할 때에는 모두 의관을 빌려 입으며, 인수를 차고 의관을 착용하는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된다고 했다.<sup>57</sup>

이에 대해 위(魏)의 주변 제국에 대한 인수는 수장권을 상징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수장층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 지역의 통교자들에게 배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군현과의 통교자가 그만큼 다양하고 많았던 사실을 대변해 준다는 견해가 있다.<sup>58</sup> 인수를 두고 발생한 이러한 비상식적 교류 현상은 바로 앞선 시기에 일어난 후한 군현 백성들의 다수 유입 사건이 이전과 다른 위나라와 한 소속의 하호 간 교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9</sup>

---

55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56 김태식은 왕성하게 발전한 변한이 곧이어 각 소국들 사이에 서열화가 이루어져서 상호간에 연맹체를 이루어 질서를 찾았을 것으로 보았다[김태식, 앞의 글(2004), 217쪽]. 그러나 자료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국들 사이엔 이미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상호간 연맹체를 이룬 상태에서 이들 유이민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일부에 국한한 것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낙랑계 유적이거나 유물이 나온다는 견해[윤용구, 앞의 글(2004a), 135쪽]도 있기에 과연 이들 유민들이 변한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을 주었는지 의문스럽다.

57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58 연민수, 앞의 글(2015), 11쪽.

59 한편 이무렵 중국 군현세력과의 교섭이 일시적으로 제약을 받았을 것이란 견해가 있는데 경초 연간(237~239) 이후 대방군의 부종사 吳林이 진한 8국에 대해 낙랑군으로의 이속을 시도하다가 마한과 충돌한 사실을 보면 신라는 군현세력과 교섭하는데 주변 세력으로써

### Ⅲ. 물계자 전승 속 금의 실체

---

전승 속에 등장하는 물계자라는 인물은 신라가 중국 군현뿐 아니라 주변 국가와 교섭을 벌이며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에 활동한 장군이다. 그와 관련된 설화는 포상팔국의 난과 함께 『삼국사기』 열전 물계자조와 『삼국유사』 피은 물계자조에 각각 실려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해이사금 14년(209)조와 17년(212)조에는 신라와 가야의 전쟁 기사가 보이며 아래에 예시한 것처럼 단편적이다.

B-1. 가을 7월에 포상팔국이 가라를 모의하여 공격하려 하자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께서 태자 우노와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병을 이끌고 가서 구원토록 명하였다. 이에 팔국의 장군을 격살하고 사로잡힌 6천 명의 군사를 빼앗아 돌려보냈다.<sup>60</sup>

B-2. 봄 3월에 가야가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sup>61</sup>

그런데 이 사료 B-1과 B-2에는 포상팔국의 난이 3세기 초반인 나해이사금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사료 B-1에서 포상의 8개 나라가 모의하여 가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가라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대목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사료에는 포상팔국이 과연 어느 가라를 공격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

---

터 적잖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란 추론이다. 김양훈, 「3세기 포상팔국전쟁 이후 남부가야 제국 동향」, 『지역과 역사』 46(2020), 19쪽.

60 『三國史記』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14년.

61 『三國史記』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17년.

학계에서는 일부가 함안의 아라국(안야국·안라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62</sup> 위 사료의 내용상 오히려 함안의 아라국(안라국) 또는 변진안야국(弁辰安邪國)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다음 사료 C의 물계자 전승 기사 가운데에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공격하려는 국가로 아라국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된다.

C. 물계자는 나해니사금시대의 인물이다. 집안은 평범하고 변변치 못했으나 사람됨이 대범하였고 어려서부터 큰 뜻이 있었다. 당시 포상의 여덟나라가 아라국을 정벌하러 모의하자 아라국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고 니사금이 왕손 날음을 보내 근처 군 및 육부병을 이끌고 구원토록 명하였다. 드디어 팔국 병을 패배시켰다. 이 싸움에서 물계자는 크게 공을 세웠고 왕손에게 미움을 샀으므로 그 공로를 기록하지 않았다. … 3년이 지나 골포·칠포·고사포 3국인이 갈화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나갔는데 3국의 병사들이 크게 패하였다. 물계자가 수십여 급의 목을 베었으나 또 얻은 바가 없었다. 이에 자기 부인에게 말하였다. ‘일찍이 들으니 신하된 도리는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날의 포상, 갈화의 싸움은 위험하고도 어려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게 되었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저잣거리와 조정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며 드디어 산발한 머리로 금을 들고 사체산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sup>63</sup>

그런데 연구자들 대다수는 포상팔국의 정벌 대상국을 김해의 금관국(변진

62 허만성, 「포상팔국에 대한 연구」, 『성심외국어전문대학논문집』 3(1985); 선석열, 앞의 글(1997); 정상희, 앞의 글(2018), 40~53쪽.

63 『三國史記』列傳 勿稽子.

구야국<sup>64</sup>)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가락국을 금관국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라국이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아라국이 포상팔국의 가락국 공격에 측면에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sup>65</sup> 즉, 3세기 중반 낙랑·대방에서 서남해안을 거쳐 김해로 이어지는 철 교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금관국은 같은 변한 지역의 또 다른 양대 세력이었던 아라국(阿羅國·安邪國)을 자신의 교역망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며 아라국은 금관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당시 금관국과 대립하고 있던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자 신라 또한 금관국(구야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라국의 화친 제의에 쉽사리 응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sup>66</sup>

D-1. 제10대 나해왕 즉위 17년(212) 임진에 보라국 고자국[지금의 고성] 사물국[지금의 사주(泗州)]<sup>67</sup>등 여덟 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 변경을 습격해 왔다. 왕이 태자 날음과 장군 일벌 등에게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막도록 명하였고 여덟 개의 나라가 모두 항복하였다. 이때 물계자의 군공이 가장 크다. 그러나 태자에게 미움을 받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 누군가 물계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전쟁의 공은 오직 그대에게 있을 뿐인데 상은 그대에게 이르지를 못했다. 태자가 그대를 미워하는 데 원망스러운가?’라고 하니 물계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위

64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65 연민수, 앞의 글(2015), 6쪽.

66 정상희, 앞의 글(2018), 52~53쪽.

67 지금의 사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초기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덧널무덤(목곽묘)이나 고분군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나마 방지리에서는 원형점토대 토기와 삼각형점토대 토기의 흔적이 한곳에서 발견되었고 월성리에서 목곽묘 1기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최근 사물국과 관련한 학술대회에서는 사물국의 지역적 범위를 하동군 진교면을 포함해 섬진강 유역까지 확장해 보는 시각, 역사적 시기를 기원전 3~4세기 이전까지 올려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병주, 「사천 땅의 옛 주인인 ‘사물국’은 어떤 나라였나?」, 《뉴스사천》, 2022년 12월 14일.

에 계시는데 어찌 신하를 원망할까'라고 하였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임금께 아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니 물계자가 이르기를, '공을 사랑하고 숨을 다투며 자기를 추켜세워 다른 사람을 가리는 것은 큰 뜻을 품은 선비로서 해야 할 바가 아니다. 때를 기다릴 뿐이다.'

D-2. 제10대 나해왕 즉위 17년 임진에 보라국, 고자국<지금의 고성>, 사물국<지금의 泗州> 등 8국이 힘을 합쳐 변경을 쳐들어왔다. 왕은 대(태)자 榛音 장군 일벌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방어하게 하였다. 8국이 모두 항복하였는데 이때 물계자의 공이 으뜸이었다. 그러나 태자에게 미움을 받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물계(자)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의 공은 오직 그대뿐이다. 그런데 상이 그대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대는 태자의 혐오가 원망스럽지 않은가?' 하니 (물)계(자)가 대답하기를, '나라의 임금은 위에 계시니 어찌 신하로서 원망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물계자가 대답하기를, '공을 쳐서 명을 다두고 자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을 가리는 것은 뜻있는 선비가 해야 할 바가 아니다. 힘써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10년 을미에 골포국<지금의 함포다.> 등 3국의 왕이 각기 병사를 이끌고 와서 갈화<굴불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지금의 울주><sup>68</sup>를 공격하였다.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방어하였다. 3국 모두 패하였고 물계자는 수십 급의 목을 베었으나 사람들은 물계자의 공을 말하지 않았다. 물계자가 그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임금을 섬기는 도리는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다하며 어려움에 임해서는 나를 잊고 절개와 의리에 기대어 생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충

68 『三國史記』雜志 地理 臨關郡條에 의하면 부속현인 河曲(西)縣은 파사왕대에 屈阿火村을 얻어 현을 두었던 곳인데 지금(고려)의 蔚州라고 한다. 屈阿火는 屈弗, 屈火로도 표기되었으며, 燭火와 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강인구, 『譯註 三國遺事 IV』(서울: 이회출판사, 2003), 356~357쪽]. 굴아화현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가 치소에 해당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구를 망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덕재, 「고대 고려 초 울산지역 변동과 蔚州의 성립」, 『대구사학』 141(2020), 5쪽.

이다. 무릇 보라[발라로 의심되는데 지금의 나주]<sup>69</sup> 갈화의 전쟁은 진실로 나라의 위급함이요 임금의 위태로움인데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잊고 목숨을 다하는 용기가 없었으니 이는 곧 불충함이 심한 것이다. 이미 불충함으로 임금을 섬겼으니 선대에 누가 된 것이고 가히 효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충과 효를 잃었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조정과 저갯거리 속을 다시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내 산발한 머리에 거문고를 들고 사체산[미상]에 들어가 대나무같은 성격이 병임을 슬퍼하며 그것에 기대어 노래를 짓는데 시냇물소리를 모방해 거문고를 뜯으며 곡조를 짓고 숨어 살면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sup>70</sup>

위 사료 D-1과 D-2에는 나해이사금 17년(212)에 여덟 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 신라를 습격했고 왕 10년에 골포국 등 3개국이 갈화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왕 10년은 이보다 앞서 일어난 나해이사금 17년에 8개국이 신라를 습격했다고 한 기사 내용을 감안하면 3년 뒤에 일어난 골포국 등 3개국의 갈화 공격 사건은 왕 20년의 오자일 것이다.

일찍이 일본 학자 중에는 포상(浦上)의 의미를 가라성(加羅城)으로 해석하여 포상팔국을 가라성팔국으로 보기도 한다.<sup>71</sup> 그러나 포상팔국은 글자 그대로 경남 해안가에 위치한 가야의 8개 소국을 의미한다는 견해<sup>72</sup>가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료 C의 물계자전에는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 골포·칠포·고사포 3국인이 갈화성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기사내용이 보인다. 이처럼 두 사료간에는 3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69 보라국의 위치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최근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정림, 「보라국의 형성과 변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3~10쪽.

70 『三國遺事』 避隱 勿稽子.

71 三品彰英, 앞의 책(1962), 173쪽.

72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부대사학』 13(1989), 30쪽.

이에 대해 앞 사료 B-2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해이사금 17년 춘 3월조에는 가야국에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는 기사가 실린 사실을 들어 17년에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해 7월에 가야에서 인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sup>73</sup> 그러나 소위 포상팔국의 난은 당시 신라에게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대규모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난의 수습과정이나 그 여파가 온전히 남아 있는 그해에 가야국에서 곧바로 인질을 보낼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3세기대 전후 신라 및 주변 제국의 대외교섭 상황으로 볼 때 앞 사료 속 포상팔국의 난은 나해이사금 14년 7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난이 마무리된 3년 뒤 신라에 대한 신의로 가야에서 왕자를 인질로 보낸 것이며, 그 해에 또다시 끌포국 등 3국이 신라의 갈화 지역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포상팔국의 난은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언어상으로 또 시대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윤색이나 오류가 발생하고 첨삭이 가능했을 것이다.

가령, 물계자전에 등장하는 충효사상과 같은 유가적 사고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유가사상이 심화될수록 슬로 알려진 고유의 악기명보다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금이라는 악기명으로 대체하여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학이 신라에 유입된 시기는 좀더 시기가 내려가는 삼국시대 무렵이며,<sup>74</sup> 거문고는 후대에 선비들이 인성 함양 및 각 지역을 유람하는 데 애용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던 도덕적 가치관을 되새기려 노력하는 데 쓰인 악기로 흔히 알려져 있다.<sup>75</sup> 따라서 『삼국유사』에는

73 백승충, 앞의 글(1989), 29쪽.

74 채미하, 「신라의 유가교육과 『논어』」, 『목간과 문자』 26(2021), 126쪽.

75 이장원, 「『현금동문유기』에 나타난 거문고 음악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물계자 전승을 피은조에 삽입시켜 의도적으로 은둔의 삶을 살아간 충신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신라에는 건국 초기부터 6촌으로 상징되는 고조선유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sup>76</sup> 고조선에 유교가 전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말기무렵으로 추정되며 중국 측 자료에는 전국시대 연나라가 왕을 칭할 때인 기원전 4세기에 고조선도 왕을 칭했고 대부(大夫) 등의 한식(漢式) 관직을 사용한 기사가 실려 있으며, 또한 양웅(楊雄)의 『방언(方言)』이나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조선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던 한자와 방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한문의 해독 능력 나아가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sup>77</sup>

아울러 유가적 인식이 교육기관의 설치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삼국시대 이전부터 낙랑·대방과 같은 중국 근현세력과의 교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자를 습득하고 유가(儒家) 사상을 접한 일부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 다호리나 김해 예안리 유적 등에서는 붓과 같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는 삼한 지역에서도 문자나 글자를 활용한다거나 해독할 수 있는 지식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기에 여러 정황상 3세기 당시 지배세력 내에는 유가적 인식을 소유한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 일성이사금 11년(144)에 내란 명령에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오직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바이다”라고 하는 글귀<sup>78</sup> 속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기사가 실제로 당대의 영(令)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른 시기부터 통치의 근본을 농사와 백성에게 두었음을 널리 알린 것이 아닌가 한다.

76 『三國史記』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條.

77 천인석, 「삼국시대의 유학사상」, 『한국학논집』 21(1994), 36쪽.

78 『三國史記』新羅本紀 逸聖尼師今 11년 춘2월조.

그런데 『후한서』와 『삼국지』 등에 따르면, 진한의 풍속에는 음주와 가무를 좋아하고 형태가 축(筑)과 유사한 슬(瑟)이란 악기가 존재하며 연주하는 음곡이 있다고 했다.<sup>79</sup>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진한에도 중국의 축과 유사한 형태의 슬이라는 악기가 있으며 이를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존재했다고 기술한 점이다. 축과 슬은 모두 거문고의 일종으로 고대 중국에서 연주되던 현악기였는데,<sup>80</sup> 중국의 축과 유사한 형태의 현악기인 슬이 진한에서도 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 진한의 슬이 언제부터 제작되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슬이라는 악기를 그 당시 진한에서도 슬로 불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며, 만약 중국에서 건너온 슬이라면 기록에 슬이라고 할 터이지 축과 비슷하다고 한 것은 중국에 진한의 현악기와 똑같은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중국 악기인 축을 대입하여 진한의 슬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며 따라서 진한의 현악기는 중국의 어떠한 악기와도 직접 관련이 없는 독특한 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81</sup>

그러나 진한의 악기가 중국의 악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특한 악기라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악기의 형태를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 중국의 악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반도보다 앞서 제작된 중국 현악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진한의 악기와 동일한 악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대의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거문고를 입수하여 약간의 변형을 통해 고유의 악기로 자체 제작한 사례를 보더라도 진한의 악기 역시 중국 왕조와의 교류를 통해 어느

79 『後漢書』東夷列傳 辰韓條, “俗熹歌舞飲酒鼓瑟”;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俗喜歌舞飲酒 有瑟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

80 문재숙, 앞의 글(2002), 105쪽.

81 김성혜, 『신라음악사 연구』(서울: 민속원, 2006), 58쪽.

시점에 전해져 진한 고유의 특징적인 악기로 탈바꿈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헌상에서 전해지는 슬이라는 악기는 한자의 전래 과정처럼 고조선의 멸망 이후 설치된 중국 군현과의 교류를 통해 전해져 3세기 전후 고유의 악기로서 정착되어 널리 보급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한 유물로는 1925년에 옛 낙랑의 유적으로서 조성 연대가 서기 69년으로 밝혀진 평안남도 신평군 석암리 205호묘에서 「왕가인신(王旻印信)」, 「오관연왕간인(五官掾王旻印)」 등의 목인(木印) 및 영평십이년(永平十二年)이라는 기년명을 가진 칠기와 함께 현악기로 추정되는 거문고와 해금의 판재가 출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유적에서 발견된 무덤의 구조가 전형적인 한식 묘제보다 낙랑 목곽묘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낙랑 205호 무덤에서 발견된 현악기는 한식(漢式) 악기라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sup>82</sup>

그 밖에도 문헌상으로만 알려진 삼한의 현악기가 광주 신창동 유적이나 경산 임당동 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어 실물이 확인된 바 있는데 비파보다는 거문고나 가야금과 같은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어<sup>83</sup> 금(琴)으로 표현되는 변진한시대의 ‘고’로 추정하기도 한다.<sup>84</sup> 또한 시대가 좀더 내려오지만 5~6세기 경주의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토우에서도 현악기가 보이며, 일본 정창원에도 신라의 현악기가 실물로 전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악기들을 모두 가야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반박하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sup>85</sup> 『삼국사기』에는 5세기대 자비마립간 치세에 백결선생이 금(琴)을 연주했다는 기사<sup>86</sup>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야금은

82 강미연, 앞의 글(1999); 주재근, 앞의 글(2019), 191쪽.

83 위의 글(2019).

84 강미연, 앞의 글(1999), 81~85쪽; 문재숙, 앞의 글(2002).

85 김성혜, 「정창원 신라금이 가야금이 아닌 이유」, 『한국고대사연구』 88(2017), 367~371쪽.

86 『三國史記』列傳 百結先生, “以琴自隨”.

본래 가야에서 가실왕이 12현금(弦琴)을 제작했고 이를 우륵이 곡을 붙여 연주했으며 우륵이 악기를 들고 6세기 진흥왕 치세의 신라에 망명하면서 이를 가야금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따라서 가야금은 가야가 아니라 신라에서 붙여진 악기명이다. 이 가야금은 『삼국사기』 잡지 악(樂)조를 보면 현금(玄琴) 및 비파와 함께 세 개의 현악기(三絃)으로서 신라악(新羅樂)에 포함되어 있는데 6세기 이후에나 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라의 현악기를 모두 가야금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가야에서도 기존 현악기에 변형을 주어 12줄의 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신라와 마찬가지로 가야 역시 고유의 현악기인 금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물계자 전승 속 악기 역시 금(琴)이라고 기술했지만 후대의 거문고가 아닌 기원전부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아 자체 제작되어 이어져 온 동시대의 악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계자 전승 속에서는 등장 악기를 금으로 표현하고 있다.<sup>87</sup> 물론 이는 후대에 전해진 금이라기보다 기원전부터 삼한에 존재한 고유의 악기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부합하다고 본다.

#### IV. 맺음말

---

지금까지 3세기대 전후 신라의 대외교섭과 물계자 전승 속 금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3세기 초반의 신라는 진한 제국 가운데 한 나라에 불과했다. 사로국 역시 삼한 여러 나라와 함께 기원후 1세기대부터 개별적으

---

87 『三國史記』列傳 勿稽子, “遂被髮携琴”.

로 서북한 지역에 위치한 한·위의 낙랑군과 교섭 내지 교류를 이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신라는 사로국 시절부터 중국의 군현세력과 교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웃한 진한과 변한의 여러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해 나갔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한 것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물계자전 및 『삼국유사』 물계자전 등에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과 물계자의 전승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사서에는 포상팔국의 난이 나해이사금 대에 발발한 사건으로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난의 진압에 참여한 우노(于老)에 대해서도 신라본기 초기 기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사료상에는 우노가 나해이사금의 아들이자 흘해이사금의 아버지로 기술되어 있어서 나해이사금과의 시차가 거의 100년에 이르며 우노가 왜인을 상대로 활동하던 침해이사금 당시 흘해이사금은 어린아이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흘해이사금이 310년에 즉위한 것을 고려하면, 우노가 포상팔국 난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포상팔국의 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며 결코 간단치 않은 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와 분석 등은 이 글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다만 포상팔국의 난과 관련한 사료 속에서 사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신라와 가라국 사이의 관계 위에 양국간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물계자와 그가 소유한 금(琴)이라는 현악기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한서』 진한조에는 ‘그 나라의 풍속에 가무와 음주, 북 치고 슬(瑟) 뜯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으며, 『삼국지』 변진조에도 ‘그 나라의 풍속

에 가무와 음주를 좋아하고 슬이 있는데 그 모습이 축(筑)과 같으며 연주하는 음곡(音曲)도 있다'라고 하는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이처럼 기록에 따르면 진·변한에는 슬이라는 현악기가 존재하며 이 악기에 대해 중국의 축과 비슷한 거문고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결국 진한시대의 신라에는 슬로 전하는 고유의 악기가 이미 존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진한에서 언제 자체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어느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전해졌는지 그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다. 다만 3세기대 신라의 악기는 후대의 고구려에 전해진 진나라의 현금이나 신라에서 제작된 가야금과는 전래 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금은 일반적으로 거문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국악학계에서는 옛 문헌의 금이 거문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sup>88</sup> 따라서 물계자전에 등장하는 신라의 금(琴) 역시 흔히 알고 있는 거문고가 아닐 수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논리의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후대에 의해 문자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편찬자가 진한의 현악기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섭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시대에 잘 알려진 악기인 거문고로 이해하고 기술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3세기대 이후 신라에는 진한의 악기인 슬(신라금) 외에도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거문고(현금)가 일부 왕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궁중에서 연주되던 악기<sup>89</sup>로서 역사적 사건 속에 등장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88 문재숙, 앞의 글(2002), 102쪽.

89 『三國史記』雜志 樂, “玄琴 …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 羅人沙浪恭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 羅王恐琴道斷絕 謂伊浪允興 方便傳得其音”.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後漢書』.

### 2. 논저

-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 2010, 7~36쪽.
- 김인구 외, 『譯註 三國遺事 IV』, 서울: 이회출판사, 2003.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편), 「김해 양동리고분군」,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 창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권주현, 「阿羅加耶의 成立과 發展」, 『계명사학』 4(1993), 23쪽.
- 김선숙, 「신라 탈해왕의 출생지와 이주배경」, 『인문학연구』 16, 2011, 89~117쪽.
- 김성혜, 『신라음악사 연구』, 서울: 민속원, 2006.
- 김성혜, 「정창원 신라금이 가야금이 아닌 이유」, 『한국고대사연구』 88, 2017, 365~410쪽.
- 김수태, 「사료국의 성장과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 82, 2016, 91~130쪽.
- 김양훈, 「3세기 포상팔국전쟁 이후 남부가야제국 동향」, 『지역과 역사』 46, 2020, 5~34쪽.
- 김지현, 「辰韓의 對外交易과 斯盧國의 성장」, 『한국고대사연구』 109, 2023, 135~144쪽.
- 김태식, 『加耶聯盟史』, 서울: 일조각, 1993.
- 김태식, 「함안 안라국의 성장과 변천」, 『한국사연구』 86, 1994, 29~70쪽.
- 김태식, 「가야와 낙랑」,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213~224쪽.
- 남재우, 「포상팔국 전쟁과 그 성격」, 『가야문화』 10, 1997, 131~158쪽.
- 남재우, 『安羅國史』, 서울: 혜안, 2003.
- 남재우, 「골포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경계』 54, 2005, 131~158쪽.
- 문재숙, 「한국 고대 현악기 연구」, 『한국전통음악학』, 2002.
-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부대사학』 13, 1989.

- 백승충, 「弁韓의 成立과 發展: 弁辰狗邪國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0, 1997.
- 선석열, 「浦上八國의 阿羅國 침입에 대한 고찰」, 『가라문화』 14, 1997.
- 연민수, 「변진시대 가락국의 성장과 외교」, 『한일관계사연구』 51, 2015, 3~31쪽.
- 윤용구, 「삼한과 낙랑의 교섭」, 『한국고대사연구』 34, 2004, 125~144쪽.
- 윤용구,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유역」,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2018.
- 이보형, 「韓國과 中國에서 臥箜篌(거문고=玄琴)類와 琵琶類의 傳承과 變化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한국악기학』 9, 2012, 7~21쪽.
- 이부오, 「1세기초 廉斯國의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 이영식, 「加耶諸國의 國家形成 問題」, 『백산학보』 32, 1985, 59~95쪽.
- 이장원, 「『현금동문유기』에 나타난 거문고 음악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현혜,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166~168쪽.
- 임효택, 「김해 양동리 제162호 토광목곽묘 발굴조사개요」, 부산: 동의대학교 박물관, 1991.
- 전덕해, 「고대 고려 초 울산지역 변동과 蔚州의 성립」, 『대구사학』 141, 2020, 33~77쪽.
- 정경희, 「2세기 후반~3세기 전반 신라의 仙道와 物品波珍浪(勿稽子)」, 『선교문화연구』 37, 2012, 9~45쪽.
- 정상희, 「포상팔국 전쟁의 개전시기와 전쟁양상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110, 2018, 21~61쪽.
- 조현종·신상효·신재명·신경숙,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木製遺物을 中心으로 IV』,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2002.
- 주재근, 「한국 고대 유적 출토 현악기의 음악고고학적 연구」, 『국악교육』 47, 2019, 187~231쪽.
- 채미하, 「신라의 유가교육과 『논어』」, 『목간과 문자』 26, 2021, 125~144쪽.
- 천관우, 『가야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1.
- 천인석, 「삼국시대의 유학사상」, 『한국학논집』 21, 1994, 35~49쪽.
- 허삼팔, 「포상팔국의 발생시기와 성격: 4세기 중반설을 제기하며」,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 金廷鶴, 『任那と日本』, 東京: 小學館, 1977.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東京: 吉川弘文館, 1962.

池內宏·梅原末治, 『通溝』, 東京: 日滿文化協會, 1940.

### 3. 기타

뉴시스, 「경주 사라리 유적서 기원전 1세기 청동거울 발견」, 《동아일보》, 2024년 5월 8일.

하병주, 「사천 땅의 옛 주인인 ‘사물국’은 어떤 나라였나?」, 《뉴스사천》, 2022년 12월 14일.

## 국문초록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및 『삼국유사』 등에는 3세기 초반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른바 포상팔국의 난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포상팔국이란 대체로 신라 주변의 경남 해안가에 위치한 8개의 소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쟁 발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세기 초반, 4세기 전반, 6세기 중엽, 7세기 초반 등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료상에서 전해지는 3세기대 무렵의 신라는 아직 진한 제국의 일원인 사로국으로서 기원후 1세기대부터 개별적으로 서북한 지역에 위치한 한(漢)·위(魏)의 군현과 교섭 내지 교류를 이어 가고 있었다. 아울러 중국의 군현세력과 교류하는 동시에 이웃한 진한과 변한의 여러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해 나갔다. 학계에서는 후한의 건안(建安) 연간인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진한의 맹주국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 소위 포상팔국의 난과 물계자 전승으로 생각된다. 옛 문헌기록 속에 남아 있는 물계자 전승에는 나해이사금(奈解尼師今)대 포상팔국의 난을 승리로 이끈 신라 장군으로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와 함께 현악기인 금(琴)이 줄거리의 한 소재로 등장한다. 지금까지 고대사학계에서는 물계자 전승에 대해서 주로 포상팔국의 난 전개 과정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했다.

그런데 『삼국사기』 잡지악(樂) 항목에는 거문고의 유래를 전하면서 4세기 이후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신라에 전해진 현악기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물계자 전승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나해이사금 치세의 3세기대 시점에서는 고구려의 거문고가 신라에 전해져 존재했다거나 자체 제작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학계에서는 물계자전의 역사적 사실을 의문시하거나 후대에 만들어진 내용으로 치부하는 등 전승의 역사적 가치를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후한서』에 진한에는 슬(瑟)이란 악기

가 존재하며 그 형태가 축(筑)과 같고 연주하는 음곡(音曲)이 있다고 한 부분이다. 『삼국지』에도 진한의 풍속에 음주(飲酒) 가무(歌舞)와 함께 고슬(鼓瑟), 즉 북을 치고 거문고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을 신뢰한다면 3세기대 신라에도 분명 현악기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3세기대에 제작된 악기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물계자 전승의 역사적 사실을 의문시한다거나 후대에 만들어진 내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포상팔국의 난이 후대에까지 회자되며 전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진한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고유의 현악기와 함께 신라와 가야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물계자란 실존인물을 연계시켜 사건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5. 10. 10.

심사일 2025. 11. 3.

게재 확정일 2026. 2. 25.

주제어(keywords) 신라(Silla), 사로국(Saroguk), 나해이사금(Naehae Isageum), 가야(Gaya), 가라(Gara), 물계자(Moolgaeja), 금(琴, geomungo), 슬(sl)

## Abstract

### The Substance of Foreign Negotiations of Silla and the Geomungo in the Transmission of the Moolgaeja before and after the Third Century

Kim, Seonsook

The war of Posangpal-guk is recorded as an incident that broke out in the early 3rd century Namhae Isageum times in connection with the water-system narratives recorded in the Samguksagi. There were eight small Gaya polities located along the coast of Gyeongnam. Although there is considerable disagreement among researchers about the time of the outbreak of war, it is generally dated to no earlier than the fourth century.

Silla was one of the kingdoms in ancient Korea. Since the first century CE, it had conducted negotiations and exchanges with Han and Wei, which are located in the northwestern region, largely on an individual basis. At the same time, Silla engaged in exchanges with Chinese military forces and incorporated the neighboring polities of Jinhae and Chaghan. Then, from the end of the second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third century, which is the year of Huhan's construction, it is understood that it began to stand out as the dominant power of Jinhan. This historical context is reflected in the transmission of the so-called Posangpal-guk narrative and the Mulgyeja tradition, which are seen in the "Samguksagi", the primary source for Silla's history, and the Mulgyejajeon of "Samgukyusa."

In the water-system tradition, the stringed instrument Gum appears as a key narrative element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Silla general who led the war against the third-century prize-winning country to victory. Therefore, in this paper, even though problems occurred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the war of the rewarding countries, the outbreak itself seemed to have occurred in the early third century. Of course, it is possible that stories of the War of the Reward of the Eight Kingdoms could be passed down to later generations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Kara,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period of Saro.